



남성중·근영중, 전국 배구대회 남녀 동반 우승

전북 남·여 중학교 배구팀이 전국대회에서 동반 우승했다. 27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정읍에서 열린 '2022 정향누리배 전국 중·고 배구대회'에서 남성중과 근영중이 남녀 중학교 동반우승을 차지했다. 남성중은 지난 5월 열린 전국소년체육대회 우승을 비롯해 올해 열린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전국 최강의 면모를 보였다. 또한 올해 소년체전에서 동메달을 목에 건 근영중은 꾸준한 팀워크와 개인 실력을 향상시키면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특히 지난 2009년 소년체전 이후 13년만에 전국대회 우승을 차지하면서 명가 재건에 나섰다. 전북배구협회 신영욱 회장은 "코트에 선 선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집중력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며 "전북 배구가 한국 배구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진안군, 체형형 장애인스포츠버스 성황리 열려

진안군장애인체육회는 27일 문예체육회관에서 관내 장애인 보호자 관련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형형 장애인스포츠버스' 행사 및 명랑운동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으로 진안군장애인체육회는 2년 연속 선정됐다. 참여자들은 버스 내에 설치된 체력측정 장비를 통하여 맞춤형 운동법을 지도 받고 가상현실(VR) 기기를 활용하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체험을 하였다. 또한 문예체육회관 내에서는 색다르 뒤집기, 터져라 풍선 등 명랑운동회가 개최되어 참가자들의 스트레스와 답답함을 날리는 기회가 됐다. 전춘성 진안군장애인체육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코로나19로 답답했던 일상이 차츰 회복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체육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완주군 산림복지과, 농촌 일손돕기 나서

완주군 산림복지과(과장 한신호) 직원들이 고령화와 높은 인건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어려움을 덜고자 농촌 일손돕기에 나섰다. 23일 완주군 산림복지과 직원 12명이 비봉면 수선리 딸기 농가를 방문해 딸기묘 제거작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해당 농가는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영농시기에 일손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큰 도움을 받아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이날 작업을 함께한 한신호 산림복지과장은 "부족했지만 일손돕기가 지역농가의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회성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일손 돕기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6.25전쟁 제72주년 맞아

전북동부보훈지청, 다채로운 행사 진행

전북동부보훈지청(지청장 최정길)은 6.25전쟁 제72주년을 맞아 지난 25일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보훈지청은 오전 10시 전주시 더메이호텔에서 거행된 제72주년 6.25전쟁 기념식을 비롯해, 오후 2시 한옥마을 일대에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펼쳐진 현충시설 부부마블, 그리고 오후 6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된 6.25참전유공자 초청 축구관람행사 등 여러 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전북현대모터스 및 전북현대 서포터즈와 함께한 행사에서 6.25참전유공자 이재윤, 이상구님이 직접 시축에 나서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 참석한 유공자들은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어 국가유공자로서 큰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최정길 전북동부보훈지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참전영웅들의 용기와 희생에 대한 감사와 보은, 그리고 전후 세대에 국가의 소중함과 평화에 대한 공감



대를 미련하고자 이번 행사들을 준비했다"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마음 깊이 새기고 보훈가족에 대한 존경과 예우의 분위기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예수병원 제25대 신충식 병원장 취임

전주예수병원은 지난 24일 본관 4층 예배실에서 제24대 병원장 이임식 및 제25대 병원장 취임식 행사를 개최했다. 신임 신충식 병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는 선교병원의 정체성을 가지고 환자를 진료하고 섬기며 이 결과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로 귀결되어 진료와 선교적 소명이 조화가 이루어 병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충식 병원장은 1969년생으로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 후 동 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1994년에 예수병원에서 인사해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과정을 마쳤다. 서울 아산병원 인공순환센터 연수, 미국 루이지애나 트레인 대학병원 정형외과 해외연수를 거쳐 서울대병원 의료경영 고위과정(AHP)을 수료했다. 이후 임상과장 총무와 주임과장을 거쳐 기획조정실 차장을 역임해 병원 발전에 헌신하며 지난 10월 제25대 예수병원장에



선임됐다. 현재 정형외과 호남 슬관절 지회 부회장과 호남 견주관절 지회 이사 그리고 대한 정형외과 국문학회지 편집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임실군 김인숙 국장, 퇴임과 함께 애향장학금 쾌척 '화제'

김인숙 임실군 복지환경국장이 40년 공직생활을 마치면서 "지역인재 양성에 써달라"며 애향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1일 퇴임식을 가진 김 전 국장은 (재)임실군애향학회에 애향장학금 3백만원을 기탁해 남다른 고향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 김 전 국장은 임실군 삼계면 출신으로 1982년 공직생활을 시작해 삼계면장, 문화관광체육과장, 행정지원과장으로 근무했다. 또한 2020년 7월 지방서기관으로 승진 이후 행정문화국장, 복지환경국장을 역임했다. 평소 자상한 성품과 강한 추진력, 탁월한 조직관리 능력을 인정받은 실적과 공직자로 정평이 났다. 특히 섬진강 르네상스 시대를 열고 있는 군에 섬진강에



코뮤지엄사업의 시작과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로 부각된 임실치즈축제를 탄생시킨 부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재임 동안 지역인재 육성에 남다른 뜻을 가지고 교육 발전과 장학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임실보훈인재학당 기반 마련과 애향장학금, 서울장학숙 등 다양한 장학사업 추진에 상당한 공을 세웠다. 김인숙 국장은 "지난 40년 나눔과 배려의 아름다운 문화가 있는 임실에서 근무하게 돼 영광이었다"며 "제가 기여한 것보다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은 것 같아 군에 그 고마움을 돌려드리고 장학사업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전했다. 심 민 이사장은 "임실군 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애써주시고 고향을 아끼고 훌륭한 후배양성을 위해 이렇게 장학금까지 기탁해주신 김인숙 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명 기자



삼천1동 지사철, 거마공원 어르신께 삼계탕 봉사

전주시 완산구 삼천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한상호)와 사단법인 섬진(대표 서영순)은 지난 25일 거마공원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나누어드리는 봉사를 진행했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과 사단법인 섬진은 무더위로 지친 어르신들에게 정성껏 준비한 삼계탕 200인분을 전달하며 안부도 물었다. 삼천1동 거마공원은 시원한 나무 그늘 정자와 게이트볼장 등이 있어 많은 어르신들이 애용하는 휴식공간이다. 사단법인 섬진 서영순 대표는 "거마공원을 이용하는 모든 어르신들이 뜨끈한 삼계탕을 드시고 무더위를 잘 이겨내시길 바란다"며 "항상 주변 이웃을 돌아보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인후2동 마을계획추진단, 이웃사랑나눔 실천

전주시 덕진구 인후2동 마을계획추진단(단장 임현)은 27일 동 주민센터(동장 이진숙)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양파 600kg를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양파는 농가 살리기 일환으로 인후2동이 자매결연한 진안군 정천면에서 구매한 것으로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됐다. 임현 마을계획추진단장은 "인후2동과 자매결연한 진안군 정천면의 농촌살리기 일환으로 양파를 구매하여 이웃 간의 정을 나누며 행복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나눔을 통해 따뜻한 사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만들기에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정영택 전북대 동창회장, 동문들 아침식사비 기부



'갑자 팔아 밥 퍼주는 안과 의사'가 있다. 정영택(61, 온누리안과병원장) 전북대 동창회장(회장)이 자신이 직접 농사지은 갑자를 후배들의 아침 식사비로 기부해 화제다. 이에 따르면 정 회장은 올해 처음으로 출하한 하지갑자 800kg를 장학재단에 기부했다. 재단에서는 평소 후배들의 아침식사 지원에 관심을 보여 온 동문들에게 하지갑자를 선물했다. 선물을 받은 동문들은 앞 다퉈 재단에 기부했다. 재단에 들어온 크고 작은 돈은 모두 재학생 아침식사로 지원된다. 정영택 회장은 "아침밥만은 먹여서 학교에 보내고 싶은 부모 마음에 후배들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하고 있다"며 "직접 재배한 갑자가 아침식사로 쓰이게 돼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차상위계층 등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많다'며 "동문들과 힘을 모아 재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확대해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전북대 동창회에서는 7300여 명의 재학생들에게 아침식사로 2,000여만원을 지원했다. /정은성 기자



희망의샘안전봉사대, '삼계탕 나눔 day' 행사

희망의샘 안전봉사대(이사장 유준열)는 지난 25일 노송동 소재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무더위에 지친 취약계층을 위한 '삼계탕 나눔 day' 행사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봉사대 회원 60여 명은 정성으로 만든 삼계탕과 밀반찬을 개별 포장해 노송동 천사 마을의 어려운 가정과 전주, 익산, 군산 등 전라북도 교통사고 피해가정 등 250가구를 방문해 직접 전달하며 인부도 확인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메타리더십그룹 총동문회와 TS 한국교통안전공단 희망VORA(전북지역 단장 이종현) 후원해 그 의미를 더했다. 희망의 샘 안전봉사대 김순덕 회장은 "이른 무더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원기 회복에 좋은 삼계탕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남원시, 고령자 생활개선회 자체역량강화 교육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는 2022년 고령자 생활개선회 활성화와 자체 역량강화를 위해 27일부터 4개 읍·면 교육을 순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7월 ~ 8월 여름철 농작업 안전관리와 여성농업인에게 심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 농촌여성신문 홍보, 종자관리, 시설 원예하우스 관리 및 여름철 식중독(살모넬라 등)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식품 위생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여성농업인에게 원예회반 만들기 체험을 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생활개선회가 활성화가 되며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진행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농협 행복이음 봉사단, 삼계탕 나눔 봉사

더워지는 계절에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삼계탕 나눔 봉사활동이 시작되었다. 지역주민의 행복이음 농협의 행복이라는 믿음으로 시작한 진안농협 행복이음봉사단(단장 이원승)과 농업인과 고객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NH농협 순해보원전북총국(국장 김현미)이 '건강한 여름나기'라는 주제로 최근 동향면 체련공원에서 삼계탕 봉사활동을 벌였다. 동향면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조합원 230명에게 삼계탕과 함께 선물을 전달하는 행사에 NH농협 정미경 진안군지부장, 진안농협 허남규 조합장파 진안농협 임원들이 함께하여 더욱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다. 행사를 주관한 진안농협 행복이음봉사단 이원승 단장은 농협의 뿌리가 되어 농협을 성장시켜주시는 원로 조합원들에게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삼계탕을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 감사하고 좀 더 건강하셔서 오랫동안 농협을 이용해 주시고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한 진안농협 이사님 감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행사를 함께 한 허남규 조합장은 직원들이 스스로 봉사단을 만들어 원로조합원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